

전남도교육청,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가속화

기본설계(안) 설명·선진교육기관 탐방



전남도교육청이 전남1호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11일 광주시 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서 대안학교 설립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대상으로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이하 대안학교) 기본설계(안) 설명회와 선진교육기관 탐방을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9월 30

일 설립예정지인 담양 봉산초교 양지분교 시설을 통해 모색한 대안학교 기본설계(안) 및 교육 시설 조성에 대해 안내하고 함께 논의했다.
지원단은 기본설계(안) 설명회를 마친 뒤 향후 발전 방향 구축에 필요한 자료 수집·분석을 위해 국내 선진교육기관인 광주 청소년삶디자인센터를 둘러보고 지평선 학교로 이동했다.

광주 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서는 미래핵심역량 중심의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립 청소년 특화시설이다. 지원단은 이곳에서 청소년 진로교육과정의 새로운 모델을 찾고, 어두운 열람실 구조의 복도를 개방감 있게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방향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평선학교에서는 인문학과 생태주의에 의한 공간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공간을 혁신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대안학교 공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지원단은 이날 설명회 및 선진교육기관 탐방에서 얻은 대안학교 기본설계(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학교 공간 구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에 학생생활안전과장은 "제안된 안 중 적용 가능한 부분을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지원단과의 다각적인 분석·검토 작업을 통해 학교 설립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주 영산포초, '아침밥 먹고 학교 오자' 캠페인

나주시 영산포초등학교는 11일 '친구들아! 아침밥 먹고 학교 오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영산포초교는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영양교육 실천학교로 선정되었으며 가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미래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밥상머리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말로 만든 아침밥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학생회 임원을 비롯한 학교급식소위원, 학부모, 교직원들이 함께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아침밥으로 출발, 맑은된장국, 삼색과일을 나눠 주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아침밥을 먹으며 오늘의 활동을 관련된 자신의 다짐과 미래의 꿈을 적어 희망나무에 걸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광주시교육청, 학부모 정책포럼 개최

29일 위더스 광주서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9일 '학부모와 교육청이 함께 가는 자치실현(이하 학교자치)'을 주제로 하는 '2019 학부모 정책포럼'을 웨딩그룹 위더스 광주에서 개최한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학부모 정책포럼'은 학부모들의 학교참여 인식제고와 학교자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마련한다.
학부모가 교육의 한 주체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자치 역량 강화, 적극적인 학부모 학교참여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발제,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원탁토론을 통해 정책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 학부모참여팀은 본 토론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학교별 학부모회 컨설팅(상반기)과 권역별 학부모회장단 간담회(하반기)를 진행했으며, 컨설팅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주제로 정책화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학부모회 활성화 정책 발굴에 관심 있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참가 접수는 오는 23일까지 전화나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160명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문의 사항은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 학부모참여팀 062) 380-4833으로 하면 된다.
조인호 기자

장성교육지원청, '초등학생과 교육장의 대화의 날' 운영



장성교육지원청은 소통의 현장 중심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11일 초등학생 및 교사 50여명과 함께 장성교육지원청 대화의실에서 '초등학생과 교육장의 대화의 날'을 운영했다.
이는 1학기 '중학교학생연합회와 교육장과의 대화의 날' 이후 2번째 행사이다.
이날 행사는 초등학생 임원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학생 및 학생자치 담당교사가 한자리에 모여 학교별 다양한 학생자치활동 운영의 사례를 발표하고 교육장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초등학생들의 다양한 사례발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이 평소 교육청 및 교육장에게 궁금한 점을 특목 튀는 질문으로 던져 현장을 웃음꽃 피는 분위기로 만들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자치담당교사는 "이번 경험은 학생들이 스스로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교육청에 감사하며 이번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들이 교육의 주인공이라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학생자치의 기초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최미숙 교육장은 "우리 학생들은 모두 소중하다. 학생들이 스스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으며 교육활동에서 소통하는 과정이 바로 학생자치이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함께 교육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고 말하며 "교육지원청은 관내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이 학생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광주시교육청, 다문화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학부모연수'



광주시교육청은 10일 하남중앙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다문화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부모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저녁에 실시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연수의 강사인 산월초등학교 유정중 교장은 학교폭력의 유형에 따른 대처방법, 이동학대 등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이해란 주제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시교육청 오경미 민주시민교

육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다문화 학부모님들이 자녀와의 관계가 증진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광주시교육청은 다문화 학부모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확대하여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 유치원 신규교사 학교자치 실행연수 호응



전남도교육청이 공·사립유치원 신규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별 공동체 요구를 반영한 교육계획 수립·운영 실행 연수를 마련해 교사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교육청은 12일 청사 8층 중회의실과 4개의 분임실을 활용

에 대한 신규교사 연수를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연수에서 이론교육과 함께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분임별 실습을 통해 각 유치원 단위 살아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실제적 역량 기르기를 지원했다.
이날 연수는 학교자치라는 전남교육청의 핵심과제를 반영한 학교

교육계획 및 학교교육과정 수립과 관련해 각자의 유치원 특성을 반영한 실습 형태로 진행됐으며, 관리자 중심이 아닌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연수 이전에 신규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놀이수업 도서 5종을 구입해 증정함으로써 사전연수 효과도 거뒀다.
연수에서는 평소 아이들과 놀이수업을 실천하고 현장 교사들이 부르는 곳이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 아낌없이 지원을 펼치고 있는 전남의 유치원 수석교사 4명이 분임강사로 참여해 신규교사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끝나는 시간까지 몰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서 신규교사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유아교육의 성장을 위한 높은 실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